

일본 속의 濟州人

문 경 수*

I. 들어가면서

大阪 鶴橋(쓰르하시)의 韓國人商街, JR, 지하철, 近鐵線의 세 가지 전철 노선이 교차하는 鶴橋역의 北西에 자리잡아 “國際市場” 혹은 Korea Town이라고도 불린다. 천 가게가 넘는 소규모 商店 모여 밀치며,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은 진짜 韓國의 風味와 原色을 실컷 맛보게 된다. 同化나 風化가 이야기되는 在日韓國人社會 속에서도 이 땅은 일본 속에 韓國을 바로 상징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종종 소개되기도 한다. 최근에도 讀賣新聞은 이 동네를 “韓國의 熱氣찬 商店街”(4월13일차 夕刊)라고 크게 소개했다.

그러나 이 鶴橋는 濟州人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다. 鶴橋 부근을 포함한 大阪市 生野(이쿠노)區의 인구는 1999년 現在 14만4천여 명으로서, 그 중의 약 30%가 韓國人인데, 그 韓國人 중의 제주출신자가 8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社會로부터 보면 그들은 어디까지나 韓國人이고, 濟州人이라고는 겨우 인식되지 않다. 讀賣新聞의 기사도 濟州島나 濟州人이라는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 즉 인구 비율로 치면 韓半島에서 10%도 못 미치는 濟州人의 삶이, 日本에서는 韓國을 象徵하는 存在로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日本社會의 이러한 시선은 生野에 사는 在日韓國人, 특히 그 2世나 3世의 정체성 형성에도 적지 않아 영향을 미치고 있다. 濟州人에게 고유한 network와 集住生活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2世나 3世들에게도 “제주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하지만, 갈등과 협조, 차별과 공존이 交錯되는 일본사회 속에서 濟州人의 정체성은 “濟州人”, “韓國人”, 그리고 “日本人”이라는 세 가지 軸 사이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이 발제에서는 그러한 正體性問題를 중심으로 일본 속의 濟州人의 삶의 실태와 동향을 在日韓國人의 最大의 集住地域인 大阪·生野에 焦點을 맞추어 살펴본다.

II. 大阪의 濟州島人 社會의 形成

일제시기 大阪로 도항하는 한국사람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大阪-제주도간의 항로 개설을 계기로 하고 있다. 1922년에는 1만 명 남짓한 在阪 韓國인 수는 10년 후의 32년에는 벌써 10만 명을 넘어, 40년에는 30만 명 수준에 이른다. 전국의 재일 한국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4년의 33%를 피크로 30년대는 30%안팎으로서 같은 시기에 10%안팎이었던 東京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 大阪에서도 한국사람이 특히 많이 거주한 지역은, 1925년의 市域확장으로 大阪시로 편입된 東成區를 중심으로 하는 大阪 동부의 신흥 공업 지대였다. 在阪 韓國인의 3분의 1정도가 이 지역에 집중했으며, 東成區에서는 이미 35년에 區인구의 13%(근 4만 명)가 한국 사람이었으며, 그 비율은 41년에는 약 25%(9만 명)까지 늘어난다. 전후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의 최대 集住지역으로 알려지게 되는 生野區는 이 東成區에서 分區한 구역이다.

이 東成區에 韓國人이 集結하는 과정을 杉原達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日本社會と移民』 明石書店).

1920년대 후반 이 지역(東成區)은 都市化·工業化를 향하여 기반정비가 進展되고 化學 및 金屬·機械 器具工業을 중심으로 한 中小零細工場의 점차 세워지고 工場 수는 大阪市各區 가운데 최다를 기록하게 되었다. 더구나 東成區에서의 고무 공업은 30년대 초에는 20년대 초에 이어 제2의 전성기였는데 그 발전을 지탱한 노동력이야말로 韓國人 중에서도 제주도 출신자들이었다.

日本으로 건너온 韓國人들의 대표적인 職業(혹은 身分)은 抗夫, 人夫, 職工, 學生 등을 들 수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하면 大阪에서 특징적인 것은 杉原도 설명하듯이 化學(주로 고무) 및 金屬·機械部門의 中小零細企業에 종사하는 職工이 많았다는

* 日本 立命館大學 教授

것이다. 여하튼 직공은 도로나 항만 하천공사 등 인프라 건설에 종사하는 인부 등에 비해 定着性이 높다. 즉 大阪에 관한 한 특정 지역으로의 集住化는 정착성을 동반했다고 할 수 있다.

30년대의 在日한국인의 定住化 傾向은 大阪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 定住化와 集住化의 核이 된 것은 어디에도 없는 大阪·東成區를 중심으로 集住 地域을 형성한 濟州島出身者들이었다. 재일 한국인의 출신지는 전국적으로 일관해서 경상남도가 가장 많은데, 大阪에서는 제주도 출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만, 제주도는 당시 행정 구역상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는 단편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在阪한국인 가운데 제주도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충 1920년대에 30%에서 40%, 30년대에는 20%에서 30%로 추정되고, 숫자상으로는 경상남도 출신자와 함께 在阪 한국인의 쌍벽을 이루었다.

이처럼 大阪에 渡航하는 제주도인이 급증한 것은 大阪-제주도간의 직통항로가 있었던 데다가, 육지에서는 關東大震災(1922년) 이후 일본으로의 渡航이 규제된 데 반해, 제주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장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제주도에서의 인구유출은 상당히 급격했다. 이는 23년-33년 동안에 전 한국 인구가 약 15%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인구가 10% 가까이 줄어들었던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이영훈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 변동과 경제사회 구조' 『제주 항쟁』 창간호). 같은 기간에 大阪에 渡航한 제주인도 1년에 약 3500명(22년) 수준에서 3만 명 수준까지 증가되고, 在日 제주인은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불어나, 33년에는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이 일본에 있게되는 사태에 이른다.

30년대 중반이후에는 제주도에서도 渡航이 제한되지만, 이 시기에는 大阪를 중심으로 제주도 출신자들의 확고한 공동체가 뿌리내리고, 일본-한국간의 경계를 넘은 제주도민의 생활권의 일부가 된다. 물론 이 시기 제주도에서 도항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濟州島로부터 渡航者는 33년의 약 3만 명에서 급감하지만 35, 36년은 각각 1만 명 가까운 도항자가 있고 귀환자를 넣으면 2만 명을 넘는다. 日本에서 同郷의 공동체 형성은 그들의 도항을 용이하게 하였다. 거기서는 소위 정착형 移民의 사회 존재가 還流型 移民의 지속 조건이 되고 있다. 즉 비공식적인 金融組織이나 친족 원조 또는 共濟組合에 의지한 農閑期의 출장노동의 큰 흐름이 이 時期에도 계속되고 그들은 제주도사회와 日本의 제주도 공동체를 묶어 일본-조선사이의 경계를 넘는 생활권을 탄생시킨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다.

해방과 동시에 20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난 재일 한국인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귀환한다. 해방된 지 1년 남짓한 동안에 약 150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大阪에는 42년의 41만 명을 피크로 40년대에는 30~40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는데, 1947년의 "外國人登錄令"에 의한 등록자는 48년부터 51년에 걸쳐 10만명 전후였으며, 역시 70~75%가 귀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출신자가 集住한 生野區에 관해서는 定着率(약 40%)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이 곳의 한국인은 계속 재일 한국인 사회의 中核의 의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GHQ가 이 시기 추진한 재일 한국인의 送還計畫은, 이를테면 一方通行의 조치로서, 한 번 본국에 귀환한 한국인이 일본에 再渡航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점령기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공식적인 入國者는 49년 11월- 50년 6월 기간에 기록된 501명에 불과하다. 이 시기 한국인의 일본으로의 渡航은 거의 密航이라는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다. GHQ의 기록에 의하면 密入國者數는 1946년에 약 2만2천명으로서 그 중 98%가 한국사람들이었다. 47년 5월에는 外國人登錄法이 공포되고, 密入國者는 6630명으로 감소되지만, 48년에는 다시 8408명으로 늘어나고 49년에는 9437명에 달했다. 분명히 4.3사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密入國했다고 GHQ가 把握한 수치들이고 그 중 70%는 체포되고 있다. 따라서 GHQ의 기록에 의해서라도 48년-49년 기간에 대충 4천명~5천명의 한국인이 密入國에 성공한 셈이다. 이런 숫자들이 기록된 G-2 覽書(Data of Illegal Entry of Korean for the year 1930(?)~1949)에 의하면 外國人登錄令의 시행 후 "상당수의 한국인이 入國을 시도해서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日本政府에 의한 外國人登錄統計가 정비된 53년의 재일 한국인 수는 약 55만 6천 명으로서 그 중 제주도 출신자는 약 6만4천 명이었다. 그런데, 59년 4월 시점의 재일 한국인 수는 60만7천명, 약 9%의 증가인데 비해, 제주도 출신자는 8만 5천 명, 약 33% (2만천명) 증가로서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24%나 능가하고 있다. 이 24%를 인구 수치로 환산하면 약 1만 5천명이 되며, 그 일부는 四·三事件 당시의 밀항자가 登錄증을 새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주로 50년대 이후에도 濟州島로부터 밀항자의 흐름의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密航에 의한 日本·濟州 사이의 往來는 1965년의 한일조약 체결까지 계속된다. 日本은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韓國政府는 外貨를 벌기 위해 이 密航을 거위 묵인하고 있었다고 한다.

1959년 12월에 시작하는 北送으로 인해 生野區의 한국인 人口는 한 때 감소하지만 日本의 高度經濟成長에 따라 生野區에서는 케미칼 샌달 (Chemical Sandal) 産業이 발전하고 이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제주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밀입국해 왔다. 生野의 케미칼 샌달 産業은 60년대 전성기에는 日本의 全生産高의 6.0%를 차지했다. 그 당시 밀항자들 속에는 점차 家庭을 꾸리고 工場을 차리고 "特別在留許可"를 받아 이 곳에 定着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金德煥은 이렇게 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일본에 건너와 生野에 定着한 濟州人을 가리켜 "新1世"라고 부르고 있다(『新猪飼野事情』, 『濟州島 1號』). 또한 高度經濟成長은 生野에 사는 日本人 젊은 세대를 유출시켰으며 生野區는 해방전의 이 땅에 뿌리를 내린 1世, 戰後 태어난 2世나 3世, 그리고 "新1世"들이 混在하는 濟州人의 지역으로 변모해 간다.

III. 濟州人社會의 獨自性과 正體性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大阪에서도 濟州島出身者와 慶尙道出身者를 비롯한 他 地域 出身者는 각기 그 거주지역이나 직업, 생활 형태를 달리하는 傾向이 있었다. 1930년대에 大阪에서 자란 梁永厚에 의하면 慶尙道出身者는 인부 등 토목 건축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데 반해 “大阪市内 동부 또는 거기에 인접하여 많이 분포하는 소규모 공장의 職工, 雜役과 岸和田, 堺方面의 방직 공장 女工의 대다수는 濟州島出身者이었다”고 쓰고 있다(『戰後大阪の在日朝鮮人運動』未來社). 남자는 직공, 여자는 紡績工이 이 시기 濟州島出身者 대표적인 직업이었다.

大阪에서의 濟州人의 生活은 마을 단위의 結束과 network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친족이나 출신 마을의 network를 통해서 日本에 건너가, 日本에서의 생활도 노동도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물론 日本에서 “마을”은, 濟州島에서 마을처럼 自己完結의이지 않고 당연히 육지부터 건너온 한국인이거나 일본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기고, 그들은 日本人으로부터는 “朝鮮人”이라 멸시받고 陸地사람으로부터는 “濟州人”으로서 차별 받았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그들의 正體性은 某里人, 某面人이라는 마을 유대 의식을 核으로 하되 “濟州人”이나 “朝鮮人”이라는 集合意識이 증첩되어, 이들 正體性 가운데 어느 측면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지는 時代 狀況에 따라 달랐다.

解放과 더불어 일본에 사는 제주인 속에서도 민족주의가 대중적으로 고조되었다. 이 시기에는 해방된 “國民”으로서의 의식이 濟州人으로서의 의식이나 “마을” 의식을 압도했으며 “朝鮮人連盟” 등 마을이나 지방을 초월한 民族運動에 濟州人들도 積極的으로 참여했다. 55년에 결성된 朝鮮連은 재일동포를 “共和國의 公民”이라고 규정했고, “社會主義 祖國”은 일본사회에서 차별과 貧困에 시달린 재일동포의 희망으로 간직되었다. 59년 북한 歸還의 길이 터지자 濟州人에게는 낯선 땅인 北韓에 적지 않은 제주인이 “歸國”했던 것도 그 당시의 민족주의의 강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朝鮮連 幹部들의 대다수는 慶尙道出身者들이 차지하고, 濟州人이 親睦會 등을 통해 뭉치는 것을 “地方主義”나 “分派行爲”라 비난했다.

한국전쟁이후 남한에서도 國民教育이나 徵兵制度를 통해서 濟州人의 “國民化”가 추진되고 이는 密航者나 民團의 활동을 거쳐 在日 濟州人 社會에도 영향을 미쳤다. 南北 間의 첨예한 대결 상황은 在日同胞社會를 분단시켜 雙方의 “國民”으로서의 集合을 촉진했다. 50年代 후반으로부터 70年代에 이르는 시기는 “反共”이나 “唯一思想” 등, 南北 국가가 위로부터 규정한 畫一的인 문화와 생활태도가 강요된 시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韓國人”이나 “朝鮮人”으로서의 集合意識이 고조된 시기에도 濟州人에게 고유한 network나 “마을”단위의 유대 의식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濟州人의 結束과 正體性 유지의 기반이 된 것은 親睦會이며, 이는 濟州島出身者에게 固有한 것이고 陸地出身의 在日韓國人 속에서는 거위 볼 수 없는 것이다. 日本의 濟州人은 해방전부터 마을 단위의 親睦會를 만들고 慶弔를 함께 하거나 서로 도우면서 공동체적인 유대를 유지해 왔다. 그 數는 100개 이상에 이르러 제주도의 전 自然部落의 과반수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해방 후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親睦會의 상당수가 한 동안 해체되었지만, 해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親睦會나, 한 번 解散된 뒤에 다시 조직된 親睦會도 많았다. 生野區는 이러한 親睦會가 조직되는 중심 지역이었다. 예컨대 역사가 오래 되고 規模도 큰 親睦會로 알려진 濟法建親會(西浦浦市法環洞)의 경우 1965년 당시 134가구 회원 가운데 114가구가 生野區에 살고 있었다(『在日大阪濟法建親會』, 『濟州島6號』).

原尻秀樹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親睦會는 “권단”하고도 重複되는 경우가 많고 親睦會의 회원들은 어떻게 보면 擬制的인 kindred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日本定住コリアンの日常と生活』明石書店). 親睦會는 제주도의 고향 마을하고도 연결되고 이 연결을 토대로 사람과 금품이 흐르는 network가 이루어지고 이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다. 65년 이후 密航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사람들이 往來가 줄어들지만 물건이나 돈의 흐름은 계속된다. 高度成長의 파도를 타 소규모나마 工場이나 가게를 차리는 濟州人도 늘어나, 그 중에는 큰 成功을 이룩하는 자도 나타났다. 그들은 日本에서 모은 財貨를 고향 마을의 社會資本의 擴充을 비롯한 近代化를 위해 투입했다. 이러한 大阪—濟州의 금품의 흐름은 개인이나 親睦會를 통한 마을 단위의 흐름을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60年代에 접어들면서 開發協會나 道民會 등이 濟州人의 資産家나 有力者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권단”이나 “마을”의 集合意識을 넘는 “濟州人”으로서 “故國과 郷土의 發展”에 이바지하려는 움직임도 이루어진다.

한편 60年代 후반이후 “新—世”의 흐름이 줄어들자 일본 속의 “마을” 文化는 활기를 잃어 化石化的 兆候를 보이게 된다. 자주 지적되었듯이, 오늘의 大阪 濟州人 社會에서는, 高度成長期 이후 매스미디어의 확대나 生活樣式의 도시화에 따라 한국에서는 거위 사라져 버렸던 方言, 風習들을 찾아 볼 수 있기도 한다. 또한 高度成長期에 생활수준이 다소나마 향상되면 마을 단위로 결속할 필요성도 그다지 절실한 일로 간직 못하게 된다. 戰後 태어나 日本의 高度成長期에 人格을 형성한 2世들은 마을 단위의 共同體的인 유대보다도 個人的 自我 實現을 중요시한다. 1世위주의 親睦會를 이어받아 그 활동에 힘을 기울이는 2世는 소수에 불과하고 “朝鮮人”으로 있는 것을 꺼려 日本人化되가는 2世, 3世들도 적지 않다. 한편 濟州人으로서의 意識을 넘어, “民族”을 指向해서 “祖國統一”이나 民主化에 이바지하려는 2世, 3世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具體的인 생활의 뿌리를 결여한 관념적인 “祖國志向”의 경향이 짙다.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매개체로 배양되는 郷土意識을 바탕을 두지 못하는 “祖國意

識”은 결국 本國의 상황에 좌우되기 쉽고 持續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80年代의 후반에 시작하는 日本社會의 國際化 그리고 냉전체제 붕괴에 인한 理念指向의 衰退와 더불어 生野의 濟州人社會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전후 10 여년 동안 畫一的인 “國民”으로서의 삶이 在日同胞社會에서도 강조되고 敗戰이라는 未曾有의 충격을 겪었던 日本社會에서도 帝國時代에 꺼안게 된 異物들을 깎아 내고 순수한 “日本人”만으로 이루어지는 “國民”으로 蘇生할 것이 지향되었다. 이에 대해 80年代 후반이후 日本社會는 그러한 배타적이고 일률적인 “國民”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과거 日本人의 差別과 蔑시의 對象이던 鶴橋의 韓國人商店街도 지금은 “異文化理解”의 뛰어난 素材로서 많은 日本사람들에게 애호되고 소개되기도 한다. 濟州島·大阪사이의 往來도 다시 증대되고 歡樂街에서 일하는 육지 사람이나 기타 外國人등 이른바 “뉴카마”들이 在日同胞社會에서 “韓國人”이나 “濟州人”로서의 文化를 活性化시키고 있다. “民族文化際”, “One Korea Festival” 등 2世, 3世들이 중심이 된 행사가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4·3위령행사”에 분주하는 2世, 3世도 적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서 의식되는 “韓國人”이나 “濟州人” 意識은 지난 시기와 같이 畫一的으로 規定된 集團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日本”, “韓國”, “朝鮮”, “濟州島”의 다양한 정체성들이 혼재되고 있고 이 混合을 總括하고 규정하는 땅은 “猪飼野”, “鶴橋”, “生野”라는 地域이자, 濟州島는 아니다. 生野區의 濟州人社會를 짚어 나가는 것도 이러한 일본에서 태어난 후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상호간의 있는 그대로의 個性의 承認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 일본과 제주도의 濟州人 모두에게 중요한 課題로 제기되고 있다.